



75년의 세계經濟展望

低成長時代의 始發點

오늘날 世界經濟는 景氣沈滯와 인플레이가 겹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昏迷狀態를 거듭하고있다. 일부 悲觀論者들은 世界經濟가 1930년대의 대공황과같은 事態로 빠져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憂慮를 나타내기도한다.

이번의 世界的인 不況은 작년 下半期부터 이미 豫想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당시만 하더라도 이번의 不況이 「가벼운 景氣後退」(minor recession) 정도로 끝날것으로 展望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작년 10월의 石油波動으로 말미암아 不況의 到來時期가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不況의 深度 또한 예상보다 깊어지게 되었다.

이번의 世界的인 不況의 特徵은 과거의 패턴과는 달리 不況의 波及이 時差를 두지 않고 先進各國에서 同時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不況에다 인플레이가 겹쳤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先進諸國은 지금까지 不況의 打開보다는 인플레이의 抑制에 중점을 두고 總需要抑制政策을 講究하여왔지만 同時 進行的인 世界인플레이를 收拾함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면 緊縮政策의 持續으로 景氣沈滯, 雇傭事情惡化등의 現象이 점차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情勢下에서 先進諸國은 최근에와서 인플레이抑制를 위해 緊縮政策을 계속 追求할 것인지 아니면 不況打開를 위해 擴大政策을 채택할 것인지 하는 問題를 놓고 심각한 딜레마에 逢着하고 있다.

石油危機로 말미암아 先進諸國의 景氣沈滯 現象이 本格的으로 나타나자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NIESR(英國國立經濟社會研究所) 등

鄭

永

喆

(經濟評論家)

세계의 主要經濟研究機關은 74년 초에 OECD 諸國의 74년 成長率이 과거 10년간 平均成長率(62~72년)인 5.1%를 훨씬 下廻하는 1~2%의 低率成長을 면치 못할것으로 내다보았으며 한편 74년 2월 이후 原油禁輸措置가 解除되고 74년 1.4분기에 世界輸出이 예상외로 好調를 보이자 世界景氣도 74년 下半期 내지 75년 초부터 回復될것으로 展望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世界經濟事情은 主要經濟研究機關이 예측했던것보다 더욱 惡化되어 왔다.

沈滯회복 된다해도 年末까지

美國이 74년에 들어와서 3분기동안 連續的으로 마이너스成長率을 記錄하였는가하면 日本 역시 74년 1/4분기중의 마이너스成長에서 2/4분기에는 다소 回復되는듯하였으나 3/4분기에 가서 다시 마이너스成長을 나타냈고 西獨 英國 프랑스를 포함한 西歐先進諸國 역시 低率成長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世界景氣의 沈滯局面이 점차 深化되자 OECD와 NIESR는 당초예측을 다시 修正하여 下向調整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놓이게 되었다.

景氣沈滯가 多分히 長期持續의인 樣相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物價는 오히려 上昇勢를 보이고있다는데 問題의 어려움이 있다.

OECD會員國全體의 74년중 GNP디플레이터 上昇率은 11.5% (OECD會員國의 61~70년간 平均 GNP디플레이터 上昇率은 3.6%)로 戰後 最高水準에 달할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의 威脅이 75년중에도 크게 緩和될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한편 石油價格의 大幅引上으로 產油國은 막대한 石油收入을 享有하는 반면에 世界各國은 엄청난 石油輸入追加負擔을 지게 되었다.

OECD 先進諸國은 石油價格引上으로 74년중 追加的으로 負擔해야할 外貨는 약 5백억달러나 되며 이것이 先進諸國의 커다란 國際收支 壓迫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產油國들은 74년중 石油收入으로 약 8백 50억달러를 거두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輸入代錢으로 支出되는 것은 3백 50억 달러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무려 5백 2억달러라는 莫大한 돈을 소위 오일달러로 蓄積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오일달러의 蓄積은 한편으로는 乘數效果를 통해서 世界的 實質購買力을 激減시키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先進諸國으로 하여금 國際收支 防衛를 위한 輸出드라이브 政策 및 輸入制限措置의 強化를 통한 隣國窮乏化政策을 쓰게함으로써 2重으로 世界貿易을 萎縮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같이 先進各國에서 景氣沈滯雇傭事情惡化 인플레이의 加速化 現象이 顯在化되고 있는 가운데 世界經濟는 다음과 같은 類例없는 복잡한 問題에 直面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로 오일달러累積에 따른 國際流動性的 偏在 및 이로 인한 世界的 實質購買力이 減少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世界貿易의 大幅的인 축소군형을 招來할 憂慮를 자아내게 한다. 오일달러의 還流를 위하여 현재 IMF案, OECD案, 美國案, 힐리案등이 提示되고있어 早晚間어떠한 解決策이 講究될 것으로 期待된다.

둘째로 先進各國은 自國의 經常收支逆調를 是正하기 위해 自國優先의인 保護貿易主義를 採擇함으로써 自由開放主義理念을 出發點으로 하고 있는 自由世界의 戰後 經濟體制의 存立을 威脅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최근 主要自然資源을 중심이로한 國際商品協定の 強化, 資源保有國에 의한 資源의 國有化등이 斷行됨으로써 資源내셔널리즘

이 점차 強化되는 기미가 보이며 여기에 政治的인 要素까지 複合的으로 작용하여 問題解決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네째로 世界食糧事情惡化를 들수있다. 世界的으로 볼때 74/75穀物年度 中 小麥在庫量은 16.0~20.7백만톤으로 前期보다 약 1974백만톤이 減少할 것으로 보이며 美國, 印度, 中共 등의 穀物作況도 좋지않다는 것을 油類問題에 못지않게 食糧問題가 世界經濟의 주요 이슈로 登場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을 示唆하기도 한다.

다섯째로 國際通貨制度改革作業에 있어서 中래의 基本方向인 「安定 平價制度」에의 復歸는 期待하기 어려우며 當분간 變動換率制의 持續이 不可避한 實情인데 이와같은 體制에 世界經濟가 體質的으로 調整될 때까지는 變動換率制는 世界交易伸張을 沮害하는 要因으로 작용할 可能性이 많다고 하겠다.

英國의 이코노미스트誌를 비롯하여 1974년도 노벨經濟學賞을 受賞한 퀴르달, 하이에크 등은 오늘날의 世界經濟가 인플레이 등으로 인한

主要先進國의 經濟成長率 豫測

(單位-%)

年 度 國 別	62~72 平 均	73	74 豫 測		75 豫 測	
			NIESR	OECD	NIESR	OECD
美 國	4.2	5.9	-2.0	-1.75	0.7	-2.0
英 國	2.7	5.2	-0.3	-0.5	1.6	1.75
西 獨	4.5	5.3	1.5	1.0	2.5	2.5
프 랑 스	5.7	6.1	4.5	4.7	3.5	3.0
日 本	10.4	11.0	-3.25	4.5	2.0	4.6
이 태 리	5.6	5.9	3.1	4.75	1.7	-0.25
캐 너 더	5.5	6.8	4.0	4.5	3.3	3.5
其他OECD	5.0	5.4	3.4	-	3.2	-
OECD平均	5.1	6.3	-0.1	0.25	1.9	0.5

資料 : NIESR,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view 1974年 11月號
OECD, Economic Outlook 1974年 12月號

民間消費의 減少→投資支出의 減少←所得乘數(Multiplier) 및 投資加速度因子(Accelerator)의 作用→世界總生産의 大幅 減少를 誘發함으로써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도 少數意見에 불과하다.

중반을 景氣循環의 低點으로하여 75년 下半期부터는 回復局面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主要諸國의 失業率은 緩慢한 景氣回復으로 말미암아 生産擴大와 雇傭增大간의 時差가 擴大됨으로써 크게 改善될 것으로는 기대

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며 失業問題는 各國의 政策當局者가 對處할 가장 어려운 問題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편 主要諸國의 인플레이는 내년 중에 다소 鈍化現象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顯著하게 改善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世界經濟는 너무나 많은 不確定要因들에 의해서 支配되므로 그 前途에 대해서는 누구도 斷言할 수 없으나 各國의 碩學들은 이 問題에 대한 解決策을 기어이 提示할 것으로 確信한다.